

“미주 한인 이민 역사, 신앙의 뿌리 굳게 붙들자!”

“미주 한인들이 이민의 역사와 뿌리를 알지 못하면 미국에 흡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1세대 아니라 우리 2세 3세대에게 한인 이민의 목적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2021년 새해, 미주 한인 이민 118주년과 평양대부흥 제 114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행사와 감사예배가 진행된다.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와 세기모(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지부장 김영구 목사), 미주정치인 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교계 대표, 미주 한인 정치인, 각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들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보고 미주 한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새해 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에서 진행 될 2021년 미주한인 이민 118주년 행사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뿌리 교육을 중심 주제로 진행되며,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로



왼쪽부터 미주한인재단 LA 이병만 장로, 세기모 미서부지부 김영구 목사, 샘 신 목사 ©기독교일보

동시 진행 된다.

이병만 장로는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와 뿌리는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의 이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을 위한 애국운동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1세부터 이민의 역사와 목적을 바로 세워 우리 2세와 3세대에게 정체성을 심고

한인 사회 연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월 14일(목) 오전 10시,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평화교회에서 진행될 1907년 평양 대부흥 114주년 기념예배는 회개로 시작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유산을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통해 미주 한인교

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돌고구를 찾도록 인도할 계획이다. 기념예배는 현장예배와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된다.

김영구 목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법과 불공정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 리고 목회자와 장로, 교회 리더십들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해 평양 대부흥의 역사와 우리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샘 신 목사는 “미 주류 사회에서는 한인 정치인들과 실업인들을 코리언 아메리칸으로 여기지만 정작 우리는 ‘코리언’이라는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한다”며 “올해 미주한인의 날과 평양대부흥 기념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 한인 이민 118주년과 평양대부흥 제 114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측은 새해 첫날인 오는 1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감리세계기도센터(New life World Mission)에서 신년성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문의: 이병만 회장 678-538-7777

“미 국무부, 北으로의 정보 유입 중요성 강조”

VOA, 관계자 말 인용해 보도...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 반대 입장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

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VOA는 “국무부 관계자의 이같은 논평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의 이 관계자가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진영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810-3455 / F. (626) 964-5559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새해 1월부터 대면 수업 재개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교장 제이슨 송, 이하 NCA)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 오는 1월 4일부터 캠퍼스를 재개방하고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

NCA는 이와 더불어 원격 학습을 선택한 학생이나 가족은 줌(Zoom) 또는 NCA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계속 집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학교 재개방은 NCA의 코비드 대책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 계획을 작성해 카운티 담당자와의 적극적으로 협의했고, 또 신중한 준비와 재정 투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한 교육 환경 마련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

제이슨 송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 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 NCA의 원격교육은 현재 코비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제이슨 송 교장과 학생들

이지만, 이번 캠퍼스 재개방을 통해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최고 수준의 교사들과 효과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개교 후 LA 코리아

타운 중심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섬겨온 NCA는 코비드19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모든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난 10개월간 캠퍼스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부터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학사를 운영해 온 NCA는 기존의 교사-학생-교실 모델의 수업에 온라인 교재와 LMS를 접목해 놀라운 효과를 거뒀다. LMS는 학생이 컴퓨터나 태블릿, 또는 핸드폰으로 교재 접속 및 커뮤니케이션, 과제 제출, 시험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 학습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NAC는 올해에도 졸업생 전원이 UC 계열 대학을 비롯해 예일대, 프린스턴, 조지아 텍, 코넬대, 페퍼다인 등 미국 우수 대학에 합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졸업반 평균 SAT 점수는 1400점 선이다.

미드웨스턴 68회 졸업식, 사회적 거리두기 속 거행

“교회를 위하여”란 기지로 지역 교회 및 선교 사역에 구비된 사역자들을 꾸준히 배출해온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미주리주 캔사스 시티 소재)은 지난 11일, 제 68회 가을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은 코로나 사태로 참석자들의 충분한 거리두기를 위해 네 차례로 나누어 졸업생과 가족들만 참석한 채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지도교수들은 졸업생들과 가족들을 졸업식장 자리까지 일일이 안내하여 훈훈함을 더하였다.

이번 졸업식에는 총 222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부에서는 25명(박사원 15명, 석사원 10명)이 졸업의 영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졸업식에서도 한 명의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in Biblical Ministries)가 배출됐다.

양정모 목사는 실신신학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와 구약학자인 김상진 교수의 지도로 “성경 사유재산권에 대한 연구: 성경신학적, 윤리철학적 접근”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양정모 목사는 논문에서 현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진행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제 68회 졸업식

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성경신학적, 윤리철학적 접근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성격과 한계점을 규명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통찰력과 적용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성경신학적 접근에서는 구약의 십계명과 토지 제도, 그리고

히년법에서 말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윤리적 관점을 고찰하고, 특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석의적,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고대 이스라엘이 견지했던 토지 제도의 특징과 의미를 탐구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무상통이 주는 경제적 함의와 적용의 한계점을 함께 고찰했다.

두 번째로는 윤리철학적 접근으로 개인재산권 논쟁을 정당화, 동기, 제한성의 측면에서 다루었는데, 존 로크의 자연권 논쟁과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 논쟁의 타당성을 탐구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한 분배를 야기시키는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 논쟁, 그리고 공리주의와 공동선 논쟁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제한성 논쟁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접근을 교회론과 관련하여 공적 신학이 주는 적용을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 존 칼빈의 소명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대적, 윤리적, 경제적 적용점을 제시했다.

미드웨스턴의 성경사역학 철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교회론의 실제적 지향을 위해 21세기 문화 속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문화 모델을 현장 목양사역과 학문적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6명의 졸업생과 수준 높은 논문들을 통해 현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교회상을 제시하는 학위과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한국부는 660여명이 재학 중이며 탁월한 교수진과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mbts.edu/ks) 또는 한국부 사무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한국부 사무실: 1-816-414-3754; ks@mbts.edu)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LA씨티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00
- 교육부예배 오전 11:00
-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 토요일침례배 오전 8:00

주소 및 전화

T. (323) 833-9090

씨니김 담임목사

“중남미 극빈 가정에 미주 한인교회 사랑 전해요”



하이티 투찌에 마을을 방문한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저개발국가 빈곤아동들을 지원하는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

한 중남미의 극빈 가정과 아동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캠페인을 펼친다.

월드쉐어 USA는 성탄절 캠페인을 통해 구제와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하이티 투찌에 마을 주민들에

월드쉐어 USA “뜻 깊은 성탄절 캠페인” 실시

게 성탄절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과테말라의 장애 시설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빈민촌, 수리남의 고아원과 빈민촌에 성탄절 식사와 선물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

하이티 투찌에 마을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빈병을 줌거나 먹을만한 음식을 찾는 것으로 일과를 보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처한 곳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지역 내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 생필품과 식료품, 긴급 생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월드쉐어 USA는 미주 한인 교회의 후원과 10달러, 20달러의 정성을 담은 개인 후원금으로 중남미의 가난한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전달 할 예정이다.

강태광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중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작은 나눔으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월드쉐어는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전쟁, 재난, 질병 그리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 중인 국제 구호 NGO이다. 월드쉐어는 활발하고 투명성 있는 구호활동을 인정받아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문의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 (323-528-7933)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신년 특별새벽 연합성회 “모.이.새.” 개최

미주 전역 한인연합감리교회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 준비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는 내년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모.이.새”(모든 이들을 위한 새벽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서 미네소타, 하와이, 알래스카 등 미국 내 52 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하는 이번 연합 새벽기도회는 각 교회 담임 목회자와 이성현 목사 (샌디에고KUMC), 김광태 목사 (사카고제일KUMC), 이진희 목사 (텍사스웨이코KUMC), 이기성 목사 (뉴저지베다니교회), 김세환

목사 (아틀란타한인교회)가 강사로 나서며,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집필한 “기쁨의 언덕으로”를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된다.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며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한인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 성회 강사로 나서는 이성현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우리들을 온라인으로 연결 시켜주고, 새로운 온라인 목회의 장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교총은 신년 특별새벽 연합성회 이후, 1월 중순부터 14명의 강사진을 초빙해 “뉴노말 시대의 정치”라는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순절 기간인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소망과 위로 - 이사야”를 주제로 미 전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함께 하는 특별새벽 연합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교총은 연합감리교회(UMC) 교단 내 동성애와 같은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한인교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복음적 입장을 가지고 교단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창립했다.

문의 : 856-424-9686 한교총 총무 김일영 목사(체리힐제일교회)

박종희 목사, 미주장신대 동문회장 연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 39회 정기총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삼명 박사) 동문회 회장으로 코이노니아선교회 박종희 목사가 연임됐다. 부회장 오충성 목사(하늘기쁨의교회 담임목사)도 함께 연임됐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는 지난10월 26일(월)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 선출 및 동문회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동문회장으로 연임된 박종희 목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동문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세계에 흩어져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동문들의 구심점이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외식과 가식 없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동문회, 동문 가운데 누군가 넘어지면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주는 동문회, 분쟁이 있을 때 사랑과 용서로 해결되어지는 동문회, 그리스도와 죽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며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동문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39대 동문회는 2021년 사업 계획으로 상반기사랑의 선물 나누기(1월 11일), 찬양 집회, 선후배 동문과의 만남, 하반기에는 동문초청 야외 모임, 찬양 축제, 40회 총회(10월 25일) 등을 소개했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의연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에수스도단), 주선영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에수스도단), 송정영목사(복음번역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미주대표), 신장원목사(복음번역 대표), 유관지목사(홍익교회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련 ‘빛은 그늘 의연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독자선 GBM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미주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LA 동부교역자협의회

회장: 박진석, 총무: 우영화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나성교회(정동섭) 나성한미교회(신용환)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늘푸른교회(박선호)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브리지교회(박진석) 미주세한교회(주신) 선한목자교회(고태형)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아름다운교회(고승희) 유니온교회(김신일) 주님의교회(김병학) 좋은비전교회(최준우) 하시엔다한인감리교회(이재석) 할렐루야한인교회(송재호) 호산나교회(라세염) 행복한교회(장경훈)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다우니제일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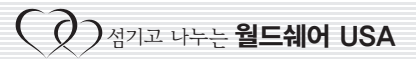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7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2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필자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담임목사님이 6.25 사변 때 북한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하셨다. 교우들이 피난을 가 텅 빈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잡히셔서 죽음을 당했다. 교회의 정문 앞 입구 쪽에 놓인 “고 안길선 목사님 순교기념비”를 보면서 자랐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면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을 시작할 때 “나도 안 목사님처럼 교회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라.”라는 각오가 있었다.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렀다. 나는 미국 목회자를 떠나 멕시코 현지인 신학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새벽기도회에서 설교를 맡은 한 학생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를 물었다. “아멘”으로 학생들이 함창했다. 순간 이 학생들의 마음이 30년 전 필자가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60명의 이 학생들이 이곳에서 훈련 받고 장차 어디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 갑자기 기대와 그들을 향한 책임감이 솟구쳐 올랐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게 한다. 세계선교를 주도했던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 “주님 다시 미국교회를 일으켜 주소서. 제2, 제3의 마포삼열,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 헤론 같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선교미국의 뒤를 이어 선교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교회마다 선교가 유행처럼 불려졌던 시기가 있었다. 2007년 샘물교회 순교 사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후 한국교회의 선교는 주춤하였다. 정말 소수의 선교 주도적 교회들만 살아남았다.

그러다가 2020년 초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다. 모든 모임과 비즈니스들이 클로스를

하면서 전 세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에 두려워 떨고 있다. 교회의 예배도 수개월째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 줌 동영상 통해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그나마도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많은 목사들은 자기 교회의 존폐 여부를 고민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선교부흥을 외치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진다.

온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는 지금이 선교부흥의 최적의 환경이다. 어려우니 희망이 필요하다.

필자는 확신한다. 어렵다 하는 이때 주님 뜻을 수행하여 교회가 열방 선교에 헌신하면 교회는 더 강하게 살아난다. 세상이 어렵고 희망이 없어지니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의 불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 지금이 기회다.

교회들이여!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눈을 돌려라. 교회의 성도들을 열방으로 파송하는 지상 대명령을 회복하자. 팬데믹 가운데서도 미주에서 200여 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열방 선교지로 단기선교, 의료선교, 샘물학교, 기능선교 등 입국의 문이 열려 있는 나라들은 모두 들어갔다. 필자는 이들과 동역하는 것이 기쁘기 그지없다. 선교의 야성이 그들에게 있다. 필자의 딸도 17명의 청소년팀을 인도하여 레바논에 가 있다. 사위는 어린이 팀을 인도하여 터키로 갔다.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는 이 팬데믹을 뚫고 나간다.

이런 그들을 기도로 후원해 주자. 부디 부정적 말로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빼지 말자.

“데살로니가 교회 흔적을 찾아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선교팀은 암피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이용한 도로는 주전 145년경 이 지역의 총독을 지낸 에그나티아가 건설했던 에그나티아 도로(Via Egnatia)였습니다. 이 도로는 당시 그리스 반도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였는데 당시 교역과 문화가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면서 바로 회당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바울이 자신의 관습대로 회당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회당이라는 말이 19회 등장합니다. 그중에 바울의 선교 활동과 관련된 회당이 13회 등장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빌립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선교에서 회당을 방문하고 회당 사역을 통해서 지역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BC 316년 알렉산더 대왕 후 그리스를 통치하게 된 카산더(Cassander) 장군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부인(알렉산더 대제의 이복 여동생)이름을 따라 ‘데살로니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는 내륙을 잇는 에그나티아(Egnatia)도로와 항구 덕분에 번창하는 상업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그리스 중앙마케도니아 주의 주도이자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별칭은 공동수도(쾨니그슈타트)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가 동로마제국 시절 콘스탄티노플에 이어 두 번째 도시여서 제국의 공동수도(쾨니그슈타트)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현 그리스공화국에서도 아테네에 이어 두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붙은 별칭입니다. 이곳은 2004년 그리스 올림픽 때 한국 축구 대표팀이 그리스와 예선전을 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로 알려진 황제 테오도시우스와 어거스틴의 스승으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대결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379-395)는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Theo, Dositus)라 칭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공포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390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주민들의 폭동 일어났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총독으로 고트 족 출신의 부테릭 장군이 근무했었는데, 그는 참모들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을 탈취했고 격분한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사령관과 참모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끌고 거리를 행진 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제국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항거한 주민들을 죽이라는 명을 전령사를 통해 내렸습니다. 이에 로마군인들이 현지어 7천명(어떤 자료는 6천명)을 살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대노했습니다. 황제에게 공식적인 참회와 교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부활절에 측근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하려 했고,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입구에서 입장을 막아 황제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성탄절에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주교는 또 다시 참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

인이 아니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에 암브로시우스는 ‘황제께서 다윗을 모방하시겠다고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셔야 합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시민들이 보는데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황제는 비로소 주교의 용서를 받고 성찬례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용기와 정의감도 대단하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믿음과 인격도 대단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주교의 책망을 듣고 순종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황제는 로마 총독을 죽인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보복하라고 했지만 곧 돌이켜 그 명령을 철회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내린 명령을 받은 전령사가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일화는 훗날 카놋사의 굴욕(1077년 1월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내용과 결말은 전혀 다릅니다. 황제 하인리히 4세는 한때 무릎을 꿇었으나 권력을 잡은 후 1084년 교황을 폐위시키며 복수를 했습니다. 그레고리 7세 교황은 이듬해 망명지에서 쓸쓸히 객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간의 짧은 선교 활동으로 중요한 결실을 얻습니다. 야손(Jason), 아리스타고 그리고 세군도 등의 결신자를 얻고,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아리스타고(Aristarchus, 행20:4, 골4:10, 몬1:24)는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시절 도시 데살로니가는 콘스탄티노플 다음가는 도시로 성장했고, 교회도 부흥하여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이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World Share USA 연말연시 한 끼 나눔 캠페인

교회와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한끼의 식사가 간절한 중·남미 아동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성탄절 하루 만이라도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소액 기부도 환영합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월드쉐어USA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한달에 \$30/\$35 소액 회원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T. (323)578-7933 후원문의: 강태광 목사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 “전문인 직장선교사 양성, 긴급한 시대적 요청”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은 연장됐지만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는 더욱 빨라지면서 제2, 3의 직업을 준비해야 할 때, 직장 복음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주장로회신학대(미주장신대) 총장 이상명 박사는 지난 12일 온라인 줌(zoom)으로 열린 미주장신학대학교-한국직장선교대학 공개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 있는 직장선교는 심각한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선교한다면,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비효율적인 선교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의 판도를 예상하고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강에는 한국직장선교대학(직선대, 대표 이재웅 목사) 간사, 훈련생을 비롯한 30여 명의 직장선교사와 미주장신대 김루빈 교무처장, 이명철 기획 및 대외협력처장, 우장훈 원격교육처장, 정용갑 선교학과 디렉터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특강 후에는 2021년 2월부터 열리는 미주장신대 온라인 선교학 석사과정(2년 6학기)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직선대와 미주장신대는 지난 7월 사역협력(MOU)을 통해 한국의 직장선교 관심자들이 체계적인 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학 석사과정을 특화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미주장신대는 미국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으로서, ATS에서 교역학 석사,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선교학 석사 등의 승인을 받았다.

이상명 박사는 이날 특강을 통해 “직선대-미주장신-로컬 교회-(크리스천) 기업과의 선교 동반자적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한국 직장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며 이를 위해 “신학교육기관에 의한 공인된 학위증과 선교기관에 의한 일터 선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직장선교사 및 일터사역자를 양성하여 파송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제4차 산업혁명과 직장선교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한 이상명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잘 알면 이 시대의 지향성을 잘 알 수 있

다. 특히 코로나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5~10년은 앞당겨진 것 같다”면서 5가지 키워드로 ①융합·연결 ②지능 ③공유 ④수평문화 ⑤생명공학을 꼽았다.

①융합·연결=독립된 영역이었던 물리학, 생물학,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연결되고, 현실과 사이버가 연결되고 있다. 이 박사는 “이로 인해 인간과 연결된 기계로 성능이 증강된 인간이 출현하면서 인간관이 변화되어 포스트 휴먼(post human) 시대가 도래했다”며 “인간 두뇌와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 의식을 결합해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하는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②지능(지능에서 초지능으로)=인류의 지식이 거의 18개월마다 배가 되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 분석과 수집은 인간이 기계를 따라갈 수 없어 일자리에 변화가 생겼다. 이 박사는 “지능이 사물로까지 확대되어 지능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고 개인 중심, 개인과 기계의 연결에서 오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③공유(문화, 경제)=정보화에 따른 지식과 네트워크 확산으로 하드 파워(군사력, 경제력)로부터 소프트 파워(문화적 가치, 외교)로 중요성이 이동했다. 또 공감사회 성격이 강화되며 공감 능력이 사회 운영의 키워드가 됐으며, 소유에서 공유, 경쟁보다는 협력, 교환가치에서 공유가치로 대체됐다.

④수평문화(수평 혹은 수평+수직의 혼계적 질서 사회로 재편)=이 박사는 “연결+지능+공유로 인해 수직적 사회 구조는 수직+수평의 혼계적 질서 위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다문화로 넘어 혼성문화로의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⑤생명공학=발달된 생명공학으로 무병장수, 인지능력과 육체능력을 향상하는 등 인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상과 운동인 ‘포스트휴머니즘’이 있다. 여러 포스트휴머니즘 중 더 급진적인 ‘트랜스휴머니즘’은 첨단 과학기술로 불완전한 인간을 뛰어난 강화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회 운동이다.

미래 직장선교의 포인트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은 “신학교육기관에 의한 공인된 학위증과 선교기관에 의한 일터 선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직장선교사 및 일터사역자를 양성하여 파송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명 박사는 앞서 4차 산업혁명의 5가지 특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용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래 직장선교의 포인트로 5가지를 제안했다.

①연대와 결속이 중요하다=이 박사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기면 자라서 나무가 되는 성경의 겨자씨 비유를 들어 연합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교 순례를 가보면 겨자는 나무라기보다 초목과로 제 키만큼 자라 있는데 군집을 이루고 있다”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예로 들으셨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가 땅에 떨어져 함께 자라 군집을 이룬다면, 그 자체가 비전이고 힘”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먼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며 ‘선교적 신학교육 기관’인 미주장신대와 ‘직장선교사 파송 기관’인 직선대, ‘직장선교사 수용 기관’인 로컬 교회와 (크리스천) 기업의 삼위일체적 선교(Trinitarian Mission)를 강조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대 방안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주의적인 신학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미주장신대에서 신학 이론과 선교적 실천이 균형과 조화를 갖춘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신학 훈련이 된 직장선교사를 로컬 처치와 기업으로 파송하여 △직장선교사의 사역지로서의 로컬 처치, 기업이 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직장선교사는 실제적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직장 내 그리스도의 닮음(imitatio Christ)을 통한 일터선교사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제껏 말씀 선포의 기능이 너무 강조되었으나, 선포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라며 “실제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격과 영성, 지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삶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자기 자신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울의 영성과 신앙교육의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음의 메커니즘으로 ‘하나님 아버지→아들 예수 그리스도→사도, 제자들(12제자와 바울 등)→동역자, 교사, 부모→성도, 학생 자녀(신앙교육)→세상(일터,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개했다.

②크리스천 집단지성을 활용하라=이상명 박사는 기독교회가 영적 동력을 잃은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를 들며 “개교회주의로는 여러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초지능 사회 속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신(神) 지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음의 상황화와 성육신적 사역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독교 인문학 학제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회와 기독교의 게토화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연대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선교기관+로컬교회+신학교육기관의 삼위일체적 연대와 동역 △위 세 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성과 영성과 경험 공유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집단지성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③복음과 선교를 위해 보이는 것

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공유하라=이 박사는 “초대교회는 미미했으나 다양한 계층, 신분, 인종이 섞여 하나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 즉 나눔과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또 물질과 재화의 공유와 분배를 통한 구제와 봉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너 서클(Inner circle)’에서의 공유를 통해서 삼위일체적 연대와 협력하고, ‘아우터 서클(Outer circle)’을 위한 공유를 통해서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구제, 봉사, 선교의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직장선교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공공성 회복과 실천 요소로는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공감성, 공익성, 공정성, 공영성, 공선성, 공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수평문화에 기반한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하라=이 박사는 마틴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하고 개혁하려 한 것 중 하나가 성직주의, 교권주의였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각자의 직업으로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신학 사상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수직적 사회질서와 문화에서 수직, 수평적 혼계 문화와 사회질서로 재편되면서 계층적, 관료적, 권위적 교회는 이전보다 급속히 쇠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박사는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고 탁월한 크리스천 일터사역자를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사역은 해외 선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학교육은 선교지향적(직장, 일터 선교지향적) 신학 이론과 선교 실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선교기관은 훈련된 일터사역을 다양한 필드(직장, 일터)로 파송해야 한다.

⑤은퇴 이후, 제2의 사역을 준비하라=이 박사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자녀 세대는 평생 7번 직업이 바뀐다고 한다”며 “은퇴 전부터 일터선교사로서 사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이며, 이러한 정체성을 지닌 직장인을 ‘직장선교사’라고 한다”며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 모든 성도가 성직자이고 선교사인데, 직선대-미주장신대-로컬교회, (크리스천) 기업과의 삼위일체적 선교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직장선교의 새 지평을 열 것”을 기대했다.

이지희 기자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트럼프 대통령, 성탄절 메시지 “구세주 탄생이 역사를 바뀔”

미 주류 언론들 보이콧 탓에 거의 보도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로 올해도 성탄절 메시지를 백악관에서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나온 영상에서 “전국의 모든 가족에게, 영부인과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매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탄절과 관련, “기독교인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기억하는 즐거운 시간이다 - 2000년도 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했다. 천사는 그녀에게 가장 높은 신분의 아들이라 불릴 남자 아이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9개월 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났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보잘것 없는 마구간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과 구세주의 탄생은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며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성탄절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2천년이 넘게, 그분의 가르침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준다. 그분의 신성한 말씀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채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도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영원한 계명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모든 이들이 성탄절을 기념해야 할 이유로 “무엇보다도 이 신성한 시기에 우리 영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증명했다.

그는 미국을 위한 기도에서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미국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과 평화가 가득한 크리스마스 시



트럼프 대통령 부부 ©백악관(White House)

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며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탄절 메시지는 미국 주류 언론들이 취재를 거부

한 가운데, 매체를 통해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미국 보수 매체인 ‘라이프사이트(Lifesite)’는 현재 트럼프와 관련된 특정 뉴스 보도가 검열되고 있으며, 이 영상은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성탄절 인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탄절 인사말은 라이프사이트 뉴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조나단 칸,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최대 분열” 국가 위한 기도 촉구



조나단 칸 목사

은 남북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오순절교회 언론매체인 ‘카리스마뉴스(charismanews)’가 최근 보도했다.

그는 ‘국제 기독교 라디오네트워크(CSN international)’ 회장인 샬런 스크튼(Shannon Scholten)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칸 목사는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불길한 심판의 징조가 나타났듯이, 2020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해 칸은 “징조(2012년 발간)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미스

터리는 증가했을 뿐이고, 그 기형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후 몇 년이 지난 미국은 지금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남북 전쟁은 ‘노예제’라는 국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나라는 낙태 죄와 어린 아이들의 피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칸은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4월 30일 링컨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선포했고, 그 다음날인 5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칸은 이 기도에 포함된 세가지 내용이 “국가의 기도가 높이 들리고(heard on high)”,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the pardon of our national sins)”과, “지금 분열되고 고통받

는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restoration of our now divided and suffering country)”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 중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링컨은 역대하 7장 14절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국가를 불러냈다”며 “기도의 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칸 목사는 올해 9월 1일에 신간인 “징조 II: 도래(Harbinger II: The Return)”를 출간했다. 이 책은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 전체 부문 10위 안에 올랐으며 기독교 예언 부문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김유진 기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실내 예배 금지 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최근 야외 뿐 아니라 실내 예배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고 2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LA카운티 측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미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실내 예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예배당은 실내와 실외의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되며,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예배 참석자들 사이에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용가능한 인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입원자 수, 사망자 수가 전례없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교인들과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 대법원은 콜로라도와 뉴저지주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 내린 예배 제한 명령을 뒤집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미경 기자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美 미시시피주지사 '기도와 금식의 날' 선포



美, 미시시피주지사, 연말, 맞아, 기도와, 금식의, 날, 선포

2020년이 끝나가고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씨름하는 가운데, 미시시피주지사는 주 전역에 걸친 기도와 단식을 요청했다.

테이트 리브스(Tate Reeves) 미시시피 주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된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어려웠고, 많은 미시시피인들에게 매우 힘든 해였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왔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동료 미시시피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나는 오는 20일 주일에도 기도와 겸손, 금식의 날을 선언하는 성명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해 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2020년을 마무리짓고 2021년을 지켜주시길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빗 팀턴(David Tipton) 목사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팀턴 목사는 선언문에서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우리의 시민적·종교적 특권이 존중되고, 이것이 새로운 세대에 영속되길, 우리의 변호사와 치안관 사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를 잘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기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하루를 맞

을 때마다 계속 기도에 전념하길 요청하며, 이 같은 노력에 도움이 되는 기도의 말씀을 외우라"고 조언하며, "기도, 겸손, 금식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에 서명한 리브스 주지사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적인 해였으나, 이를 통해 미시시피의 진정한 정신과 사랑스럽고 온유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 "더 나은 미시시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는 대니 파월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FFRF)은 리브스 주지사에게 금식 선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FFRF 덴 바커(Dan Barker)와 애니 로리 게이러(Annie Laurie Gaylor) 공동대표는 리브스 주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시시피 주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당신은 중립을 지키고 모든 시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빼앗았다"며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는, 수정헌법에서 보호되는 양심의 문제로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리브스 주지사는 과거에도 교회가 미시시피 주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해 왔다. 많은 주지사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시도로 예배를 제한하고 있으나, 리브스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강해진 기자

미 가장 친생명적 '아칸소' 연방 법원, 낙태 제한조치 허용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연례 시위에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모습.

미국 연방법원이 아칸소 주의 낙태 제한 규정이 합헌이므로 허용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낙태 옹호 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생식권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올해 아칸소 주의 낙태 제한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태아를 절단하는 낙태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의 소녀가 낙태를 할 경우 의사가 법 집행 기관에 알리도록 요구하며, 성별에 따른 낙태 금지와, 태아의 조직 보존과 폐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달 15일에 제8 항소법원은 원고인 두 단체의 법 무효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칸소 주의 낙태 제한법은 빠르게 이달 22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ACLU의 '생식의 자유 프로젝트'의 선임 검사인 루스 할로우(Ruth Harlow)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러한 아칸소 법은 낙태 반대 정치인들의 최악의 동기를 나타낸다. 낙태 환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낙인을 찍고, 굴욕을 주며, 접근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낙태 치료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칸소 주 법무장관 대변인인 스테파니 샤프(Stephanie Sharp)는 판결을 지지하며 "이것은 아칸소의 친생명법을

입증하는 또 다른 승리"라고 발표했다.

아칸소 주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6일 '생명을 위한 미국인 연합(Americans United for Life)'이 매년 미국의 가장 '친생명적인(pro-life)' 주의 순위를 발표하는 '라이프 리스트 2021'에서 1위에 선정됐다.

레슬리 러틀리지(Leslie Rutledge) 아칸소 주 법무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환영하며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며 "제가 법무장관인 한, 태아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이 놀라운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나는 우리의 친생명법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위한 미국인 연합은 아칸소 주를 1위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로 2019년 주 의원들이 통과시킨 '10대 친생명법(whopping 10 pro-life laws)'에 있다.

이 법안은 낙태 예방 조치로서, 임신 18주 이후와 다운증후군 진단에 따른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를 수행하는 의사들은 이사회에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시 이 법안은 작년 8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주 지방 법원 차원에서는 폐지되었다.

김유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공복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이침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생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를 위한, 이민자를 위한, 선교를 위한, 신교를 위한, 신교를 위한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화차)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모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복이 되자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예배(엘리엔데) (소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말하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12월) 오후 7:00(금)
종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c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영국 웨일스 새 교육법, 초등학생 대상 '관계와 성교육' 의무화 논란



©Unsplash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영국 웨일스의 새로운 교육법안이 기존 성교육 보호장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커스티 윌리엄스(Kirsty Williams)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여름학기 의회에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교육인 '관계와 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수업을 포함, 웨일스의 성교육과 종교교육에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가 성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중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성교육 거부권을 갖는 현행법을 뒤엎는 것이다.

지난해 웨일스 정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의 87.5%는 3~16세 청소년들에게 RSE를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론과 인본주의와 같은 비종교적 관점에 대한 수업도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RE)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종교가치와 윤리'(Religion Values and Ethics, RVE) 교육과정의 일부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RVE에 관한 조항은 "다른 주요 종교의 가르침과 관행을 고려하면서, 대영제국의 종교적 전통은 주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니라 현행법을 넘어 "영국은 비종교적인 철학적 신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지방 당국은 모든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비종교위원회를 각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사이먼 칼버트(Simon Calvert) 공보 담당 부국장은 "이 법안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보호장치를 무너뜨리고,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부적절한 자료에 아이들을 노출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버트 부국장은 "성교육을 하는 단계들은 오랜 기간 학교에 부적절한 자료를 밀어넣었다. 교사들은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현행법이 부적절한 가르침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여지를 제공하는 반면, RVE는 종교보다 무신론을 선호하는 일방통행식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 "종교교육의 교수요강에 동의하는 제도가 정비되면서, 2011년까지만 해도 사회의 종교를 없애는 것이 목표였던 영국 인본주의 단체들은, 이제 종교교육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됐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아침 찬양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블리제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935-5887

MP제들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 성경공부 저녁 7:45
588 Altiss Ave., Monterey Park, CA 91753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935-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길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중국, 외국인 종교활동까지 규제한다



©pixabay

중국국가종교사무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 이하 중국 사무국)이 최근 종교 규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중국 내 외국인들까지로 확대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가 16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사무국은 지난 11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를 위한 세부 규칙'이라는 제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 새 규정은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종교의 독립성 원칙과 자주적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를 수용해야 하고, 종교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선 안 되며, 중국의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 외국인만 모이는 모든 종교집회가 중국 정부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규정 11조에는 정부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종교부 직원이 외국인의 종교 집회를 주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7조는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경우가 아니면 종교 활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사원이나 교회

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0조는 종교 활동 시간, 참가 인원, 활동 형태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을 종교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3조에는 신청자가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예로부터 사용되어 왔던 종교 서적', 즉 기독교라면 성경을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돼 있으며, 8조에는 외국인 집회 주최자는 '중국 법률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중국에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규정은 한 마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면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세상의 이목을 끌면서 이러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 이유는 외국인 종교 집회라는 핑계로, 중국 시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찬물을 끼얹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이 세부 규정에서 가장 긴 부분은 바로 법에 명시된, 중국 시민과의 '종교적 소통' 행위를 하는 외국인에 대한 벌금과 처벌 조항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또 감독회장 및 감독 관련 소송전



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총회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선거 후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모 목사는 최근 총회에 이철 감독회장 에 대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행정재판을 제기했으나, 총회 행정기획실은 지난 11일 해당 소장을 반려했다.

반려 사유로는 △선거법 위반과 선거 소송이 혼재돼 있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각각 사건을 분리할 것 △고발인 권면서를 첨부할 것 등을 거론했다.

이에 지 목사는 “소장 반려는 위법한 행정이자 명백한 소송거부 행태”라며 “더 이상 교회법의 판단을 받기 어려우니, 사회법의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 목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무효소송 분안과 감독회장 직무정지가 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의 이유에 대해 선관위에 의해 후보 자격 탈락했던 기호 3번(이철 감독회장)이 구제받기 전 미주 선거권자 136명과 해외선교사 300여명이 투표를 완료해 선거권이 침해됐고, 감독회장 당선자인 이철 목사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부연회 감독 정연수 목사(효성중앙교회)도 금품 제공을 이유로 고발 당했으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

이대용 기자

본국, 코로나 확산세 속 ‘드라이브인 워십’ 성탄예배



예배 참석자들이 축도 후 마스크를 쓴 채 차량 밖으로 잠시 나와 주위 사람들과 성탄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지희 기자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분 혹은 전면 봉쇄 조치를 취하거나 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1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 26%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각국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말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여 비대면 예배 원칙과 현장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참석자를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조희서 목사가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이런 가운데 현장에 모여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드라이브인 워십(Drive-in Worship)’을 선포해 온 서울씨티교회(조희서 목사)가 20일 교회 주차장인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 성탄주일 예배 및 총동원예배를 드렸다.

이날 성도들과 초청받은 전도대상자들은 200여 대의 차량에 가족 단위로 탑승한 채 질서정연하게 성탄주일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희서 목사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누가복음 12장 16-21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아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단위로 참석한 성도들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조 목사는 이어 “부자가 곡식 창고를 크게 짓고 소출을 쌓아놓고 날마다 즐기려

해도 언제 주님이 그의 영혼을 찾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랑구에 위치한 금란교회, 경동제일교회, 신내감리교회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예배당이 영생을 받은 성도들의 땅 기증과 헌신, 기도로 세워졌다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물질과 재능을 내어놓고 선교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했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적어도 서울씨티교회를 2-4개 교회로 분립시켜 지속가능한 교회로 만들어주고 은퇴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목사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유명 신학자인 버나드 앤더슨의 분석에 따르면 ‘구약에 구원, 민족 해방, 자유 등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80% 이상은 그 시대 왕과 제사장, 지도자, 백성의 악행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질타하고 책망하던 시대는 유대 신정국가가였고, 지금은 이방세계이므로 정치에 관여하거나 체제를 바꾸고 대항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철두철미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는 핵심 본질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미선 목사(LA씨티교회), 이화자 필리핀 선교사가 각각 성탄 예배와 북한 복음화 및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상훈 장로(부산 성지교회)의 특송, 유리바다 찬양팀의 헌금송, 문영용 목사(중랑구교구협의회 상임회장)의 축도로 이어졌다. 특히 교회는 참석자 전원에 주침 등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었고, 27년간 서울씨티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로 섬겨온 김태영 부목사에도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서울씨티교회는 오는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드린다.

이지희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철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일말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미재향교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주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철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백정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철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이 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평케 하니 그로써 복을 얻고 생애를 누리게 함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왕상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찬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철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최순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안성복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일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말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철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정기성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샘물교회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미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철년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안성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철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철년 영어) 청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철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철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필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기독교일보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죄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것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인데 오만합니다.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찢쩍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마치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반면에 전능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빌 2:7).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데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기로 오셨고,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셨습니다(요 12:24).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작은 것 속에 담겨 두신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사소한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소한 것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담아 두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연약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연한 순에 비유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사 53:2). 연한 순은 작은 순입니다. 연한 순은 푸릅니다. 푸르다는 것은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른 순에는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푸른 순은 또 다른 순을 만들어냅니다. 푸른 순 속에 잎사귀가 담겨 있고, 아름다운 꽃이 담겨 있고,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연한 순은 연약합니다.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사람들의 사랑을 끌어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멀리합니다. 반면에 연약한 사람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을 품게 됩니다. 가까이하게 됩니다. 사랑을 창조하는 힘은 연약함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에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유연함을 낳습니다. 강하면 부러지지만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친밀한 사랑의 비밀입니다. 연약할 때 우리는 서로 의존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요 15:5).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끝없이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찬규목사님은 인생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100층 건물을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추락할 위험이 큼니다. 인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 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 놀라운 기회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시련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높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자세를 낮추게 하시고,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감추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최인호작가는 그의 책 《유림》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잘 그려줍니다. 그 분은 높은 산과 같은 분인데 땅 아래 자신을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땅 아래 자신을 감추는 높은 산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높은 산인데 땅 아래 감춰진 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토록 겸손한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과 같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구유에 감추셨습니다(눅 2:7).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태어나실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소박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눅 7:34).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은 창기와 같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신 후에 아름답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십니다(엡 5:27).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복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탄주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16세기 이전까지 스위스의 제네바는 프랑스와 이태리의 교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은 많았지만 크고 작은 전쟁도 많았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쓰레기와 인분으로 뒤덮였고 토사물과 썩어가는 포도주 냄새가 가득한,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정치 난민, 용병, 창녀, 부랑아 등 온갖 유럽의 문제아들이 다 와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을 통해 제네바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죄를 죄로 알게 되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끊고 사창가 출입 대신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저축하면서 은행의 돈이 늘어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난민들을 돌보는 구제 사업이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들어섰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의와 정직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1류 국가 스위스는 바로 칼빈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고, 그것은 지금도 성시화 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신분차별과 부정부패 속에서 꿈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힘이 없어 열국의 각축장과 같이 아수라장이었고, 결국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침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처참한 시기에 파란 눈의 선교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더럽고 냄새나는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조선의 사람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밥 먹여 주냐고 면박을 주고 서양귀신들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들을 질질 끌고 오고 예수복음을 전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가난한 배를 움켜쥐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새벽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맹이던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었고, 술과 노름을 끊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일제 강점기와 공산당의 침략에서도 굳건한 신앙으로 민족정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조국 땅에 온 지 백여 년 만에 선교사 파송 세계2위의 선교대국이 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미움과 원망의 문제, 질병과 죽음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풍성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안내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분(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381-9490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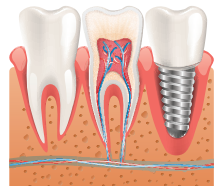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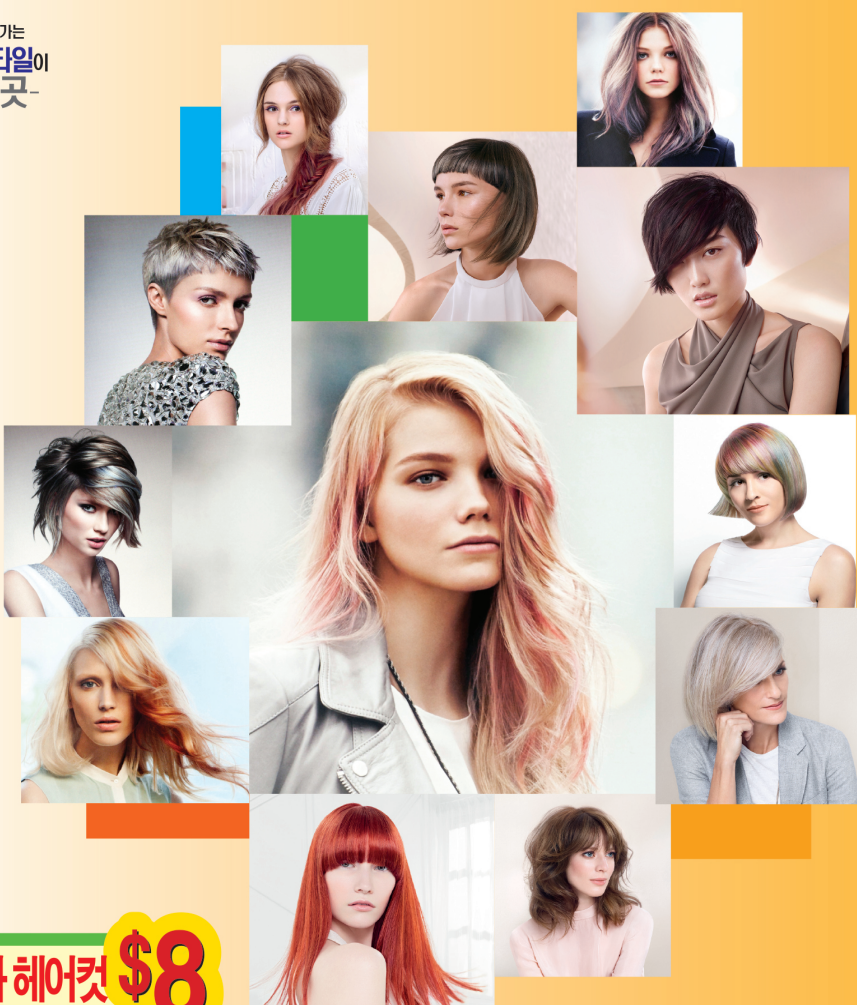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

열왕기하 6:1-6



서울성모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의 내용은 BC 84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 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면서 미신과 우상을 섬겨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혼란에 빠졌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 선지 학교 건립

그 당시 선지 학교라는 것이 성경의 소개대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길갈, 벧엘 그리고 본문의 나오는 요단강이 인접한 도시로 여러곳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지자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령과 진리로 무장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에게 보내셨습니 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선지 후보생 생도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간접으로 역사해서 사방에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하여 이 선지 학교로 모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의 시설이 지금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두 세배로 생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활공간이 상당히 비좁아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선지 생도가 점점 늘고 있으니 교실과 방을 크게 넓히고 식당도 확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믿음 좋은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액의 현금을 하게 하여 우리 시설을 크게 확장 이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즈음 선교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 공상맞은 예배 처소 사진을 찍어서 좀 힘 있는 교회라고 여겨지는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이고, 우리의 형편이 협소하여 너무나 고생스럽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통하여 현금하게 하고, 멋지고 크게 시설을 확장하게 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하라. 너희 문제이니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염치없는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 북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직접 선지학교를 크게 지어 이전하자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교장 되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기 장소가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크게 지어 옮겼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렇게 하라고 승낙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선지생도들의 마음과, 성령으로 이끌려 가시는 교장 선지자인 엘리사의 마음도,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선지 생도들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함께 요단에 이르러 나무로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4-5절에 언급된 "나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 다른 의미입니다. 4절에 언급된 "나무"라는 말은 "에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집"은 손가락보다 더 굵은 것으로 팔목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있는 "나무"는 "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굵은 나무를 뜻하는 단어로 기둥감, 들보감 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 굵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로 수십 번 그 나무 밑둥치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나무를 찍다가 보니 빌려온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생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당황한 선지 생도는 스승인 엘리사에게 빌려 온 것이라며 다급하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 바닥에 잠겨있다고 걱정하는 선지생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무 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를 강에 던지자 스스로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에게 "취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생도는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도끼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3.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목적과 교훈

이것은 무슨 비방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왜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까?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면 그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지생도들이 집중하게 되었을 때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선지생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될 후보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도끼자루 빠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일도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선지생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인 엘리사에게 절대 순종하고, 훈련을 받으며, 기도에 더욱 힘쓰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리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교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 선지생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도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목자나 양떼가 같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선지생도들과 선지자 엘리사처럼, 우리 성은교회도 목양기간에 같은 성령으로 이끌리며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기자는 목적으로 쓰임 받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3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www.marhlaw.com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은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10시 30분
청소년예배 오전 10시 30분
English Service 오후 12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월~토)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이희문 담임목사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cometojx@gmail.com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금)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김성식 담임목사
T.(213)245-6616

구세군나성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11:2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금 저녁 7:3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이주철 담임사관
T. (213)480-0714

남가주기쁨의교회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 CA90710 이항영 담임목사
T:(310)326-030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림학춘 담임목사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www.pubtheo.org
T.(310)738-0485

류준영 목사

토랜스선한목자교회

1부 한어예배 주일 8:00AM
2부 EM 주일 9:15AM
3부 한어예배 주일 11:00AM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7:30PM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김현수 담임목사
T.(310)326-2001/310-989-4381

은혜와평강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광덕근 담임목사
T. (818) 894-9266

밸리주하나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Youth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성경공부(토) 오후 5:30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오정택 담임목사
T.(818)794-0691/805-208-8242

갈릴리 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0:5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e., LA, CA 90018 한천영 담임목사
T.(323)735-6412 / gmcchurch.com

은혜로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김경환 담임목사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지금은 기도 할 때입니다”

연말과 새해에 새벽에 W,LA, 말리부 산타모니카지역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월~금 (새벽 5:30분)
교회는 보건의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드립니다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김경렬 담임목사
T. (310)502-9999 / www.smkc.us

동부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우영화 담임목사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PLAY FOR ALL NATION

대표총재 : 피종진 목사

서부지부대표
김영구 목사 (NKIA 탈북자 선교회)
(310)404-6219

Kim Young Koo
김영구 목사

영광 빛 복음교회

온라인 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시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우대권 담임목사
Tel. (714)833-2568 ykbgd@daum.net

가디나선교교회

1부예배:주일 오전 8시
2부예배:주일 오전 12시
수요전도:수요 오후 4시
새벽기도:화~토 오전 6시 30분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이호민 담임목사
Tel. 310)387-5729

사중복음 연구소

(The Institute for Fourfold Gospel in America)

소장 류종길 박사

1201 S. Beach Blvd, #215, LA Habra, CA 90631
T. (562) 315-9820

LA임마누엘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최순길 담임목사
T. (714)743-0141

동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새벽 5:30
(토) 새벽 6:30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고귀남 담임목사
T.(213)483-6625

한마음제자교회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후 1:00
중고등부 오후 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광부환 담임목사
T. (213) 321-4433

나성한미교회

1부예배 오전 7:50
2부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신용환 담임목사
T. (626)444-0058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오전 7:00(토)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코너) 김기섭 담임목사
T. (213)386-2233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고태형 담임목사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조응철 담임목사
T. (702) 579-7576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사랑을 베풀고 돌아설 때

진정한 행복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마음에서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장사오형 | 최인애 역
다연 | 316쪽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탈 벤 샤하르의 '행복학'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다

'행복'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대체 무엇인가 바쁠수록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

바쁜 것이 미덕인 시대다. 코로나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자 바쁜 삶이 부러운 삶이 되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다. 끼니다. 바쁘게 일하다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건강을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건강을 잃고 나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목적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살 때가 많다. 우리가 바쁠수록 챙겨야 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다. 정신도 챙겨야 한다.

한 유럽인 탐험가가 남미로 탐험을 떠났다. 탐험 도중, 그는 험난한 열대우림은 통과하기 위해 인디언 두 명을 짐꾼 겸 가이드로 고용했다.

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조금만 더 가면 열대우림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디언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탐험가는 그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 수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줄 테니 '어서 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듣는 듯 마는 듯, 그저 한자리에 꼼짝하지 않고서 있기만 했다. 답답해진 탐험가가 따지듯 물었다.

"대체 왜 안 가는 거요?" 인디언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라다니, 누굴 말이오?" "영혼이요. 여기까지 너무 빠르게 걸어오느라 우리의 영혼이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우리를 따라잡을 때까지 적어도 하루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는 바쁜 세상에서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려준다. 책은 하버드 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강의 중 하나인 탈 벤 샤하르 교수의 강의를 담고 있다.

그의 강의는 학술적 영역을 넘어 학생들의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샤하르 교수는 하버드에서 가장 환대받는 교수이자 '인생의 스승'이 되었다.

샤하르 교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거에 그는 하버드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뽑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스쿼시 선수로 전국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으나 그는 지난 30여 년간 한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는 5번의 강의를 통해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강 나답게 살 때 행복이 온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차분히 자문해보자.

"지금, 나는 행복한가?"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의 조건을 정의한다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답게 살라고 조언한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포장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2강 행복해지고 싶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세상이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트집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

물론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과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조금씩 열어지게 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다가 오히려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보다는 이런 일이 왜 생겼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3강 돈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철강으로 많은 돈을 번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돈을 벌겠다는 것은 가장 나쁜 목표다. 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보고, 좁은 의미의 재물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물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돈이 없어 힘든 일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물질이 무한정 늘어난다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돈이 유일한 신앙이자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애초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즉, 이상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4강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비교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신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계속 실망하게 된다. 이러한 실망감은 결국 불행으로 끝이 난다.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일리노이대학교 심리학과의 에드 디너 교수는 "만약 우리가 기대와 바람, 욕망을 점차적으로 줄인다면 훨씬 쉽게 만족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맹목적인 비교를 하지 않으면 된다. 맹목적인 비교가 끝없는 욕심을 만들어 낸다. 게다가 비교 대상과의 격차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인생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비교해야 한다. 지금의 자신을 예전의 자신과 비교하고,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대상이 자신의 과거가 되면 삶은 훨씬 풍성하고 행복해진다.

헤밍웨이는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과거의 자신보다 뛰어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5강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린다. 결국, 삶은 냉담하고 매정하게 변해간다.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모른 채한다.

진정한 행복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 사랑을 베풀고 돌아설 때, 우리는 우연처럼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일이다. 행복과 기쁨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진심으로 남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우리는 대부분 위대한 일을 해내기엔 벼차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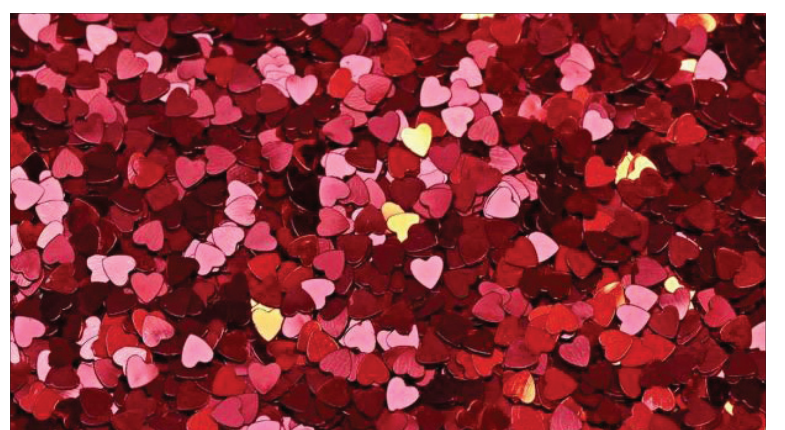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에서 온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마음을 챙기자. 끼니도 말씀도 거르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축 성 탄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주일~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기쁘라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joyfulccc.office@gmail.com 818-662-0400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choonghyun.org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민종기 담임목사

총현선교교회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축성탄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1부	2부	3부 (열린예배)	4부
오전 7:30 본당	오전 9:30 본당	오전 11:45 본당	(조용기 목사 영상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주일 대예배	예배 모임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3-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45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EM CAM(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토요일 19:0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